

參 考 文 獻

Achelis, E. Chr., Lehrbuch der Praktischen Theologie, 3 Bde, Leipzig 1911. 3. Aufl.
 Burkhart, John E., "Schleiermacher's Vision for Theology", in : Don S. Browning (ed.), Practical Theology, Sanfrancisco : Harper & Row, 1983, 42-57.
 Ebeling, Gerhard, Studium der Theologie : Eine enzyklopädische Orientierung, 박 근원 역, 신학연구개론,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Händler, Otto, Grundriß der Praktischen Theologie, Berlin 1957.
 Kantzenbach, Friedrich Wilhelm, Schleiermacher, Reinbek bei Hamburg, 1967.
 Klaus, Gerhart (Hrg.), Praktische Theologie. Texte zum Werden und Selbstverständnis der Praktischen Disziplin der Evangelischen Theologie, Darmstadt, 1972.
 Osmer, Richard Robert, A Teachable Spirit : Recovering the Teaching Office in the Church, Louisville, Kentucky : John Knox Press, 1990.
 Redeker, Martin, Schleiermacher : Leben und Werk, 주 재용 역, 슬라이에르마허 : 생애와 사상,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Rössler, Dietrich, Grundriß der Praktischen Theologie, Berlin 1986.
 Schleiermacher, F. D. E., Kurze Darstellung des theologischen Studiums zum Behuf einleitender Vorlesungen, Leipzig 1910. (Kritische Ausgabe herausgegeben von Heinrich Scholz)
 _____, Gedanken zu einer Theorie der Erziehung. Aus der Pädagogik-Vorlesung von 1826, Heidelberg 1965.
 _____, Praktische Theologie, herausgegeben von J. Frerichs, Bd. 13 der theologischen Reihe, 1850.
 Wintzer, Friedrich, Praktische Theologie, Neukirchen 1985, 2. Aufl.
 Wulf, Christoph, Theorien und Konzepte der Erziehungswissenschaft, München 1983, 3. Aufl.

천년왕국설에 대한 재고찰

한 정 건 부교수 *

I. 서 론

1. 본제(本題)의 중요성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불리워지는 "천년"은 계시록 20장에만 나타나는 말이다. 계시록 20장은 천년동안 용(마귀)이 결박되고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다.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천년이라는 기간이 실제의 역사적인 기간인지, 아니면 영적인 숫자인지를 두고 여러 견해들이 나뉘어 끊임없이 논쟁하여 왔다.

몇년전부터 잘못된 사이비 종말론의 극성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었다. 그 열풍이 지나간 지금 한국신학계와 교계는 안일한 생각으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바른 종말론의 체계를 세워야 할 때인 줄 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사이비가 쉽게 나타나지 못하게 건전한 종말론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최근 신학계에서 종말론, 특히 천년왕국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책임의식의 맥락에서 볼 때에 무척 다행스럽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에 보수교단에서 종말론에 관하여 다른 문제들보다 왜 천년왕국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안다. 천년왕국은 종말론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앞의 더 많은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천년왕국설은 오랜 세월동안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왔지만 아직 끝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바른 종말론의 정립을 위해 천년왕국설은 반드시 거처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말론의 다른 부분들을 다 해석해 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천년왕국으로 맺던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해석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먼저 정립하고 들어가던지 그 순서는 각자의 취향에 따를 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가 더 바람직하지만 후자의 경우도 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어떤 설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의 종말론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천년왕국을 예수님 초림과 교회로 해석하면, 앞에 전개되는 종말론도 초림과 현교회 중심으로 위어질 것이며; 반면에 재림으로 해석하면 그 반대로 재림을 중심으로 종말론을 위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종말론의 체계화를 논할 때에 천년왕국을 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종말론 강해]라는 책을 근간에 출간하여 종말론의 시작에서 끝까지 많은 중

* 신학박사, 구약학 전공

요한 본문들을 순서대로 다루어왔다(모든 본문들을 다 포함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필자는 그 책의 결론을 더 확실히 맺을 겸, 또 한국교계가 종말론 정립을 위한 종말론 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제를 택하였다.

2. 천년왕국의 개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에 천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성경구절은 신구약을 통털어 요한계시록 20장 한곳에만 나타난다. 계시록 20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천년동안 인봉한다(1-2절). 그리고 천년 후에는 그 용이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고 한다(3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른다. 천년이 차매 용이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들을 소멸하고 마귀가 불과 유황 불 못에 던지운다. 하늘과 땅들이 죽은자들을 내어주고 그들이 백보좌에 앉은 하나님에게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운다. 이를 둘째 사망(첫째 부활과 대조하여)이라고 부른다.

21장에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한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하나님 임재를 표현함)이 있으며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다.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왕국이 어떤 유형의 왕국(영적인가 혹은 역사적인가)이며, 또한 이 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니면 왕국 이후에 재림하실지에 대한 논란이 극심하다. 주님이 이 왕국 이전에 재림한다면 “전천년기설”이며, 이 견해에서의 왕국은 역사적인 왕국이 될 것이다. 왕국이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천년기간(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기간) 동안 있는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설을 우리는 “후천년기설”이라고 부르며, 한편으로 천년이란 기간은 전 교회시대를 말하며 왕국도 역사적이 아닌 영적인 것이며 이 영적인 왕국(교회시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무천년기설”이라고 부른다.

천년왕국설은 기독교계에 오랫동안 토론되어 온 주제이며, 아직도 기독교계에서는 어느 한가지 설이 뚜렷하게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3. 천년왕국설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한국교회에서는 일제시대에 환란기를 거치면서 전천년기설이 압도적으로 목회자들과 교인들 사이에 만연하여 왔다. 우리의 선배들은 환란중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행하여 주님이 이제는 오시는가 고대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에 가득찼었다.

교인들만이 아니라 한국의 신학전통도 전천년기설이 주를 이루어 왔다.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이울서 박사(W. D. Reynolds)가 천년기전 재림론을 가르쳐 온 이후 일제시대의 신학교는 주님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천년왕국을 사모한 신앙으로 가득 찼었다(박아론, 1992: 5 참조). 해방 후 한국의 조직신학의 기둥이었던 박형룡 박사도 그의 [교의신학] 제 7권 “내세론”(pp 198-206)에서 전천년기설을 가르쳤다.

그러나 옛날의 분위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화란과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자들이 보수주의 신학교에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무천년기설이 확대되어, 현재 보수주의 장로교 신학계에서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무천년기설이 거의 주류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세대주의 신학이 전천년기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중으로 무천년기설이 더욱 그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마치 전천년기설은 세대주의 신학인양 금기시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박아론, 1992: 6 참조).

미국의 장로교에서는 옛 프린스턴 시절에 부터 무천년기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프린스턴 신학이 자유주의 진영과 보수주의 진영으로 나뉘이면서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한때에 세대주의와 연대한 근본주의로 불리워졌으나, 곧 프린스턴 보수주의 후예들은 세대주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보다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할 신학의 대상자로 투쟁하게 되었다(김기홍, 1988: 35ff 참조). 세대주의와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논제들 중의 하나는 물론 천년기설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와 전천년기설을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생기된 것이다(idem: 38). 그러나 전천년기설은 세대주의 이전에 부터 있어 신학의 학설이며 결코 세대주의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또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기설과 전통적인 전천년기설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구 프린스턴 그리고 프린스턴 후예들은 메이첸을 필두로 하여 알리스, 그린 등 무천년주의가 주류를 이룬다. 미국의 칼빈주의에서 웨스트민스터 뿐만 아니라 칼빈 신학교의 조직신학교수 Berkhof와 Heokema는 역시 무천년기설의 미국보수주의 신학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프린스턴의 전통이 무천년기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지만 모든 프린스턴의 후예들이 그설을 따른 것은 아니다. Ch. R. Eerdman은 무천년기설과 후천년기설을 반대하였다. 어드만은 앞의 두설은 이 지상시대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고 주장한다(1922: 76-78). 자신은 세대주의자가 아님을 밝히면서 계시록 20장에 예언된 천년왕국의 존재와 그 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하지는 그의 책 *Systematic Theology* 제 3권에서 천년왕국은 현 교회 상태에서의 발전으로 보았고, 프린스턴 전통의 신학자 B. B. Warfield(*Biblical Doctrines*, NY: Oxford Univ. Press, 1929) 와 프린스턴의 후예인 E. J. Young 등은 후천년기설 편에 섰다. 그러나 이러한 후천년기설은 무천년기설과 근본적인 여러면에서 서로 입장을 같이하며(교회시대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왕권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함), 그들은 함께 전천년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미국 보수주의 신학의 영향을 입어 근대의 한국장로교 신학계에 무천년기설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국교계는 무천년기설을 토대로한 신학과 종말론에 안주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불건전한 종말론이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였다. 이제 우리는 과연 무천년기설에 한국의 교계가 마냥 안주하고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종말론 체계를 제시해야 할 것인지 하는 어떤 기로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국의 신학계가 주로 채택하여 안주하고 있는 무천년기설이 진정한 성경적인 학설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왕국설에 근거한 새로운 종말론의 체계를 제시해야 할 것인지를 이 논문을 통하여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본 논문의 구성 및 제한성

본 논문의 목적은 “무천년기설이 과연 성경적인가?”하는 것에 초점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무천년기설이 합당하지 않다면 보다 성경적인 학설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에 보수 장로교계에서는 후천년기설과 세대주의 전천년기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필자도 먼저 앞의 두 학설들이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최근의 한국교계는 무천년기설과 전천년기설이 서로 핵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역시 필자도 이 두 학설에 초점을 모을 수 밖에 없음을 먼저 주지하는 바이다. 더 좁게 말하면 본 논문은 무천년기설이 과연 성경적인지에 그 초점을 모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무천년기와 역사적 전천년기를 비교하면서 성경본문해석이 양자간 어느 것을 더 지지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본 논문은 계시록 20장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그외에 필요한 다른 본문들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신학적인 고려사항도 살필 것이다.

본 논문은 무천년기설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찾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게 될 것이므로 천년왕국에 대한 성격과 특징 등 왕국자체에 대한 연구에 불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왕국설에 대한 논쟁으로 제한할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II. 천년기설의 여러 견해들

1. 무천년기설 (Amillennialism)

무천년기론자들은 요한계시록 20 : 4-6의 나타나는 천년동안의 왕국은 이미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현재의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왕국시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Hoekema, 1986 : 240이하 참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사단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기간동안에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천년의 기간은 실년수가 아니라 초림과 재림사이의 전기간을 의미하며, 천년왕국이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에서 실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무천년주의자 중 어떤 사람은 “무천년기론”이라는 용어보다 “실현된 천년기론”(Realized Millennialism)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Hoekema, 1977 : 155f : idem, 1986 : 240). 천년왕국은 이미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영적인 왕국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본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단은 음부에 결박당한 상태이며, 그 세력이 급격히 감소된 상태 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증거를 마태복음 12 : 29에서 찾는다 ;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누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누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후크마는 이 구절에서 강한자는 사단을 뜻하며 그를 결박하였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20 : 2의 의미를 뜻한다고 주장한다(1977 : 162). 또 다른 증거로는 누가복음 10 : 17-18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든다 ;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상에서 사단이 결박당하고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세계적으로 번져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에 지

적된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의 초림때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는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이 문제는 뒤에 다루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미래의 왕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본다. 그러나 동시에 현 세상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시대에 교회가 종말론적인 축복들을 이미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천년기설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 | | |
|-------|-------|--------|
| 예수님초림 | 예수님재림 | |
| | 교회시대 | |
| | 천년왕국 | 영원한 왕국 |

2. 역사적 전천년기설 (Historical Premillennialism)

전천년기설은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의 묘사를 19장에 나타나는 주님의 재림사건 이후에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장에 용이 가두이는 것은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이며, 주님의 통치를 영적인 통치로 보지않고 재림후에 있을 예수님의 실지적인 통치로 생각한다. 이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에 성도들이 살아서(육체적인 부활) 참여한다. 그 후에 사단이 잠시 놓임을 당할 것이고, 왕국에 있던 사람들도 이 사단의 유혹에 반응을 보이게 되며, 최후의 대반란(곡과 마곡의 전쟁) 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악을 심판할 것이다(Ladd, 1977a : 참조)

성경해석의 원리에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언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그 극단적인 반대편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보다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가급적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취한다.

전천년기설의 가장 큰 약점으로 공격을 받는 점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전천년기설에 대한 충분한 토론은 뒤에 다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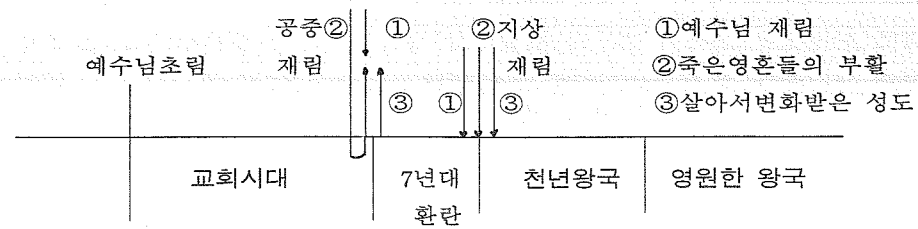
전천년기설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 | | |
|-------|-------|--------|
| 예수님초림 | 예수님재림 | |
| | 교회시대 | |
| | 천년왕국 | 영원한 왕국 |

3. 세대주의 전천년기설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세대주의자들은 그들 특유의 독특한 전천년기설기를 주장한다. 계약신학자들 중에는 무천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전천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기설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세대주의 전천년기설은 역사적 전천년기설과 여러면에서 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여기에 대한 비평은 뒤에 하겠다).

4. 후천년기설 (Postmillennialism)

후천년기설은 현 역사속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다. 후천년기설의 가장 큰 특징은 현 세대(교회시대)의 역사속에서 이 땅위에 기독교의 황금기가 올 것이며, 번성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Boettner, 1977 : 117).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위에 시작되었고, 이 천국 복음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악이 만연하며 불신의 세력이 더 강하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사단이 옥에 갇히며, 그 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개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 올 것이다(유대인들도 대거 개종이 있을 것임). 이땅은 하나님 나라로 가득차서,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의 왕국화가 될 것이다. 이때에 죄가 완전히 제거될 것은 아니지만 죄의 상태로 감소될 것이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도 크게 개선되어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천년왕국)는 흔들릴 것인데, 즉 사단이 농임을 받아 악이 다시 들어오고 이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세상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Boettner, 1957 : 14-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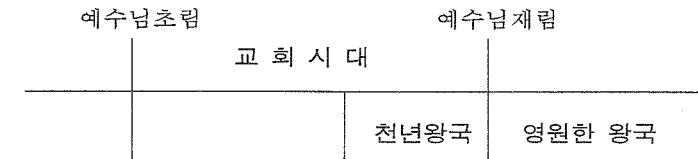
그들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시편 47 : 2과 97 : 5등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의 왕으로 그리고 온 땅의 주로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땅위에 천년왕국때에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스가랴 9 : 9에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언되고 난 직후 10절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평화가 이루어 질 것이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한 것이 바로 온 땅위의 편만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다. 성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될 것이라는 구절들도 후천년기설을 뒷받침한다고 그들은 본다(계 7 : 9-10).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마 28 : 19)도 그대로 이 땅위에서 실현될 것으로 본다. 이사야 11 : 9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는 말씀이 천년왕국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천년주의자들도 그때에 땅위의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또 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소수의 불신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또 작은 악이 아직 존재할지라도 악의 세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 기간은 사단이 결박당하여

활동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조차 온순해질 것이다(idem, 1977 : 121). 복음의 능력은 마치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강력할 것이며,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Kik, 1971 : 250).

그들은 천년왕국의 시대에는 땅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에서도 악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짐승과 짐승, 사람과 짐승사이에도 평화가 있으므로 본다. 이사야 11 : 6-9에 묘사된 파라다이스가 이 땅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후천년기설을 도표로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 우리는 천년왕국에 관한 네가지 학설들을 보았다. 우리는 앞의 네가지 학설들 중에 먼저 세대주의 전천년기설과 후천년기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난 후에 무천년기설과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비교연구해 보고자 한다.

III. 세대주의 전천년기설과 후천년기설에 대한 평가

1. 세대주의 전천년기설 비판

1. 1.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은 땅위에서 이루어질 회복된 이스라엘로 본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군림할 것이며,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만든 이스라엘 국가의 완성으로 본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셨고(삼하 7 : 12-16). 이것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확증되기도 하였다(왕하 28 : 5, 7), 그들은 이사야와 다니엘이 예언한 미래의 왕국(사 9 : 6-7 ; 단 2 : 44등)을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할 것으로 국한시키며, 이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강조한다(Hoyt, 1977 : 65). 그들은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눅 1 : 32-33 ; 행 1 : 3, 6).

그러나 우리는 그들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 문제에서 지나친 영해도 배격하며, 또한 지나친 문자주의도 경계한다. 예레미야 31 : 31-37에 있는 새언약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주어졌지만,¹⁾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교회가 이미 새언약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것

1) 계약신학자들은 새언약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Robertson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민족성(ethnic line)을 의미하기 보다는 교회를 위한 모형적(typological representation of God's people)인 뜻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1980 : 288ff). 그러나 본 저자는 예레미야서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에 새언약은 그것은 분명히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으로 본다(한정권 1987 : 33ff).

으로 증언한다(히 8:8-12).²⁾ 우리는 로마서 9-11장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구속받은 자들에게 더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음도 간관해서는 안됨을 주장한다(엡 2:11-19; 롬 10:12).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왕국(천년왕국)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군림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물론 이스라엘의 다수가 회복되고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왕국에는 이방인도 똑같이 참여하며,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된 것은(그들은 흔히 "suspended" 혹은 "postponed"라는 표현을 사용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으로 본다(Hoyt, 1977: 90). 그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순절 성령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연기되어 오늘날 교회시대로 잠시 대치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방인이 주류를 이룬 교회시대는 구약에 예언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신약시대에 삽입된 것으로 본다.

이 주장에 대하여 Ladd가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한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모두 거절한 것이 아니다. 그들 중에 500명의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사람도 있었으며(고전 15:6), 오순절에는 수천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하였지 않았는가?(Ladd, 1977b: 94 참조).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이 말하는 왕국의 연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구약은 메시아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할 것을 자주 말하고 있다. 특히 이사야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사 42:6; 45:14f; 49:6; 54:1ff; 56:3 등),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한 후에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이며,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다(사 11:10ff; 29:17-23; 54:1ff; 56:3-8 등). 따라서 교회시대는 구약에서도 밝혀진 바이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초림하여 이룰려고 하였던 것을 연기되었다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이전에 아담에게부터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창 3:16),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언된 약속된 회복이다(창 9:1ff).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회복의 축복이 약속되었었다(창 12:3; 18:18; 22:18 등). 따라서 천년왕국은 우주적으로 회복되는 왕국으로 보아야지 이스라엘 왕국으로만 볼 수가 없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 2. 천년왕국에 참여할 성도들의 구분

세대주의자들은 대체로 7년대 환란전에 휴거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천년왕국에 참여할 성도들을 휴거된 성도와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 두 분류로 구분한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7년대 환란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며, 그 때에 교회는 휴거되어 올라가고(살후 2:7 근거) 남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환란을 일으킬 것이

2) 본 저자는 히브리서가 새언약이 교회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을 교회가 혜택을 받는 것이지 새언약이 원래 교회에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fulfilment) 그러나 완성된 것(consummation)으로는 보지 않는다(already, but not yet) (이를 위해 자세한 토론은 한정건, 1987: 313-4 참조 바람).

다. 이 환란의 기간 중 유대인들이 거족적으로 복음에 돌아온다; 7년간 주님이 공중에서 성도들과 함께 혼인찬치에 참여한 후 주님은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할 것이다. 그때에 휴거되어 올라간 사람들은 변화받은 영화로운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할 것이나 휴거되어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현 육체대로 왕국에 참여할 것이다. 천년후에 사단이 놓여 세상을 유혹할 때에 이 육체대로 남아있던 성도들이 곡과 마곡의 반란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휴거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17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으며, 또한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 중에 늦게 구원에 동참한다는 사실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³⁾

세대주의자들은 부활을 여러 분류로 구분한다. 구약의 성도들의 부활(겔 37:24-25; 단 7:18, 22, 27)과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의 부활(고전 6:2; 계 3:21; 20:6), 그리고 대환란 때에 순교당한 성도들(계 20:4)의 부활을 각각 다르게 구분한다(Hoyt, 1977: 81). 특히 구약성도와 신약성도를 구분하는 것은 그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는 지나친 문자주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니엘 7장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환란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볼 때에(마 24장, 계 6장; 13장 등) 그러한 환란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되는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해서 신약의 성도들을 배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지 개개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의 부활을 7년 대환란 전의 성도들과 환란을 겪을 성도들의 부활을 각각 다르게 구분하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다. 성경 어디에서도 부활이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만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부활이 예언된다면 그것은 환란전이나 환란후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보아야 한다.⁴⁾

1. 3. 천년왕국의 실패의 문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설기설이 주님 재림 이후에 있을 왕국이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데에 강한 반기를 든다.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때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년주의자들 중에서도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세상 역사의 일곱세대중에 마지막 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그들은 천년왕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극단적으로 분리한다. 세대주의자들은 세대를 일곱세대로 나누며 모든 세대들마다 다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었으며, 모든 세대들이 다 실패로 끝난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천년왕국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재림이전의 이세상

3) 필자가 장두만 교수와 현대종교 1991. 4월호부터 10월호 사이에 휴거에 대하여 지상논쟁(紙上論爭)한 것을 참조하기 바람. 필자의 1991: 46-81 참조 바람.

4) 천년왕국에는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없다. 확실한 것은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서 몸이 변화받은 성도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용의 유혹을 받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변화받은 성도들 외에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참여함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구약성경에서 풀수 밖에 없다(곡과 마곡의 전쟁기사가 쓰인 에스겔 38-39장과 천년왕국의 묘사로 여겨지는 이사야 본문 등).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왕국과 천년왕국의 차이보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 사이의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본다. 즉 천년왕국은 세상 역사의 일곱세대 중의 하나의 세대에 포함시키는 반면, 영원한 왕국은 이 일곱세대의 세상역사와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이다.

필자는 일곱가지의 세대로 구분하는 세대주의 기본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천년왕국이 실패로 끝난다는 주장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있을 곡과 마곡의 반란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천년이후에 사단을 옥에서 놓아 한번더 세상을 유혹할 기회를 주지만 그들이 결코 그리스도의 왕국을 넘어뜨리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을 실패라고 할 수 없다. 곡과 마곡의 대반란에서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든든히 서 있을 것이며, 그 왕국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천년왕국이 천년후에 끝나고 이것과 완전히 다른 영원한 나라가 천년왕국을 대치할 것으로도 필자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의 시작이다. 다니엘 2:44절은 세상 나라들을 쳐부수고 들어설 이 왕국은 영원히 설 것으로 말한다. 다니엘 7:14에도 이 왕국은 패하지 아니할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이 왕국이 넘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의 이러한 주장이 천년왕국의 특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천년왕국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죽음의 문제 등). 그리고 천년왕국의 기간동안 아직 둘째사망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마지막 대반란이 있고 난 후에 사망의 심판이 최후로 있을 것이다. 이런면에서 천년왕국과 그 뒤에 계속될 영원한 나라사이에는 어떤 상태적인 이질성이 있을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천년왕국은 영원한 나라에 속하지 결코 이 세상 역사의 연장선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천년왕국은 회 복된 미래(age to come)의 왕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왕국의 속성은 영원한 왕국에 속한다는 것이다(단지 중간에 부분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지만).

2. 후천년기설에 대한 평가

2. 1. 후천년기설과 다른 기설들과의 비교

무천년기설과 전천년기설이 극과 극의 주장이라면 후천년기설은 중간에 해당하는 설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설은 다른 양쪽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천년기설은 무천년기설과 근본적으로 가깝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설도 무천년기설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즉 둘 다 천년기간이 재림이후에 있을 실제적인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 다 계시록 20:6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견해들을 보면 그들은 사단의 결박은 현 교회시대에 있을 것으로 보는 것과,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며, 심판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

그러나 후천년기설이 무천년기설과 다른점은 교회시대 중간에 어떤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무천년기설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 사단이 결박당하였다고 말하나, 후천년기설은 교회시대에 아직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중 어느

시기에 이르면 사단이 결박함을 당하여 지상에 천년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이다.

후천년기설과 전천년기설이 많은 다른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외로 공통점도 많음을 볼 수 있다: ① 둘 다 1,000년이라는 기간을 역사적인 어떤 기간으로 본다는 점과; ② 둘 다 예수님의 지상통치를 말한다는 점; ③ 특히 서로가 공통점을 가지는 것은 구약에서 흔히 묘사되는(사 11:6-9; 겔 34:26-31) 낙원의 모습을—즉 인간에게만 아니라 자연세계까지도 평화가 깃들—천년왕국 시대의 것으로 본다는 것; ④ 양쪽이 모두 지상에 사단의 역할이 없는 세계를 말하며, 죄가 극도로 감소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땅위에 편만하게 된다는 것; ⑤ 파라다이스 이후에 다시 사단이 풀려나와 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도 전천년기설과 같다.

그러나 후천년기와 전천년기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점들은 후천년기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 역사속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전천년기설은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후천년기설에서는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만(this age), 전천년기설에서는 오는 세상 (the age to come)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천년기설의 천년왕국은 후천년기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사야 11:9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풀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는 말씀은 전천년기설에 의하면 재림후에 이루어질 왕국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는 반면, 후천년기설에 의하면 이 세상 마지막 천년기간 중에 복음이 널리 퍼져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후천년기설은 계시록 20:6절의 부활을 중생으로 보나, 전천년기설은 육체적 부활을 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2. 2. 후천년기설에 대한 비평

후천년기설이 나름대로 성경구절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들의 주장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과(마 28:19),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두루 전해져야 할 것과,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땅위에 개개인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들은 왕국의 시대에 이르면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게 작용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찰 것을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상태를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비유의 말씀에서도 찾는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이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음)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성장한다는 것을 일곱가지의 비유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13:24-30의 가라지의 비유는 오리려 복음이 가는 곳에 마귀도 함께 따라 다니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으며, 추수때까지 가라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교회)는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드디어 온 세상에 가득찰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본문의 천년왕국에대한 묘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본문은 용이 잡혀 감금되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단 번에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 20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왕국은 보아야 한다.

그들은 세상 역사 중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계시록 20장에 본문 이외에 성경 어디에도 역사의 중간에 이러한 사단의 결박이 있을 것으로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무천년기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사단이 결박당하거나 떨어지

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뒷받침이 있다(마 12:29; 눅 10:17-18). 그러나 후천년이 주장하는 교회중간에 결박당한다는 것은 성경적 뒷받침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파라다이스를 묘사하는 많은 구절들이 현 세대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모습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이사야서의 구절 등)이 과연 교회시대에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초림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낙원의 모습이 실현되는 왕국의 묘사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에스겔 34:23에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24절은 그가 다윗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메시아의 초림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이어 25-31절에 낙원의 모습이 나타난다. 초림에 이어 낙원의 모습이 바로 나오는 것이다. 이사야 11:1에 “이세의 즐거이에서 한 썩이 나며”는 메시아 초림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다. 그리고 2-5절에는 그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과 이어서 6-9절은 파라다이스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본지에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절들에서 나타난다. 만약 우리는 성경을 있는 순서대로 해석한다면 초림에 이어서 따라오는 지상낙원은 마치 후천년기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너무 단편적인 시간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구약 성경은 때로는 포로귀환에서 시작하였으나 지상낙원의 모습까지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겔 36:22-36 참조). 이 경우에 우리는 포로귀환의 세대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마치 넓은 땅을 축지(縮地) 한 것과 같은 묘사로 이해한다. 도표를 그리려는 자는 산을 점으로만 표시했지만 그 산에 실제로 가 본 사람은 그 기슭이 엄청나게 넓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사역, 즉 초림에서 이루고(fulfilment) 재림에서 완성할 것(consummation)을 시간의 간격을 무시한 채 한꺼번에 묘사했지만, 실제 그 시대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이 두 사역이 엄청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후천년기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지상낙원)이 주님의 초림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보다 재림때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교회의 시대에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이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과, 평화와 번영이 실현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후천년기설에 접할 때에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이 낙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겠는가”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은 양 날을 가진 칼과 같다. 지구 한쪽에서는 잘살게 되고 평화롭다고 할지라도 한쪽은 전쟁과 굶주림이 항상 있으며, 한쪽에서 평화로우면 다른 어느 한 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된다. 과연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요하며, 평화로우며 때가 있을 것이라고는 이 세상 역사속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후천년기설은 또한 교회는 점점 성장하여 마침내 온 세계에 가득 찰 것이라고 주장한다.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은 마침내 세계를 정복하고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에 과연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이 세상을 정복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한쪽에서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교회의 문들이 닫히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교회가 늘어나고 믿는 자들이 다수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과연 악이 감소하고 성도들이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오늘날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교회안의 모습을 볼 때에, 교회가 평화와 공의의 실현과 동일시 될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지 아니한가?

이상의 여러 이유들로서 우리는 후천년기설을 성경적인 바른 이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앞에서 우리는 네 학설 중 세대주의 전천년기설과 후천년기설의 부당성을 먼저 살펴 보았다. 이제 우리는 무천년기설과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비교 평가해 봄으로써 어느 학설이 가장 성경적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IV. 역사적 전천년기설에 기초한 무천년기설 평가

앞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과 후천년기설이 합당하지 못함을 살핀 우리는 이제 남은 다른 두 학설들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면을 줄이고 논쟁의 편리함을 위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무천년기설이 합당한지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무천년기설과 역사적 전천년기설 어느쪽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1. 계시록 구조에 대한 견해

현대 무천년주의자의 대표적인 주석가이며 신학자인 Hendrickson과 Hoekema는 계시록을 7단원으로 나누고 있다; 첫부분은 1-3장, 둘째는 4-7장, 셋째는 8-11장, 넷째는 12-14장, 다섯째는 15-16장, 여섯째는 17-19장, 일곱째는 20-22(Hoekema, 1977: 157-59). 그리고 모든 단원들은 병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하여 초대교회를 거쳐 마지막 때까지 긴 기간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는 첫째 단원이 초대교회의 입교교회를 포함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심판과 상급을 받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단원에서 12장은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13장에 교회시대의 어려운 환란을 거쳐 14장에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일곱번째 단원도 20장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21장에서 재림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있을 왕국이 세밀하게 묘사된다는 것이다(Hoekema, 1977: 158).

그러나 필자는 Hoekema등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그들의 계시록의 구분이 정당하지 못하다.

필자는 계시록은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단원이 이루어져 있는 책으로 본다. 즉 계시록은 1-3장까지의 서론과 그 뒤에는 일곱의 사이클들이 계속 연결되는 본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계시록은 이 사이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단원은 서론(1-3장); 둘째, 일곱인의 비밀(4-7장); 셋째, 일곱 나팔의 비밀(8-15장); 넷째, 일곱 대접의 비밀(16-22장).

물론 이상의 대단원들 안에서 소대지들이 또한 나뉘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인 19장과 20장을 구분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인데, 필자는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뒤에 밝히도록 하겠다.

(2) 각 단원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하여 재림으로 마친다는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

Hoekema는 일곱단원들을 구분하고서는 각 단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하여 교회시대(초대교회를 포함) 그리고 재림의 순서로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Hoekema의 주장의 근거를 계시록에서 찾을 수가 없다. 물론 12장은 초림으로 시작한다. 오히려 초림 이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필자는 초림을 발견하지 못한다. 서론부분(1-3장)은 이미 부활 이후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위로하시는 장면으로 부터 시작한다. 일곱 인의 단원(4-7장)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였던 어린양이 심판주로서 인을 떼는 장면으로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초림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⁵⁾

그들이 구분하는 세째 단원(8-11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8장은 오히려 세상에 대한 주님의 심판으로 시작하여,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타락시키는지(9장), 그리고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시작되는 한 전쟁으로 시작하는 세가지 화들에 대하여 묘사된다.⁶⁾

그들의 네째단원에서는 물론 그리스도의 초림이 나타난다. 그러나 12장의 초점은 여자에게 있으며, 이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본문은 여자(이스라엘)⁷⁾가 용(사단)에게 어떻게 위협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인지에 대하여 말해줄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론은 그 기간을 1,260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한때와 두때반(세때반)으로 다시 설명한다. 세때반은 다니엘에서는 두번이나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으로 말해지고 있다(단 7:25; 12:7). 물론 Hendrickson과 Hoekema는 계시록 12장의 이 기간을 신약시대 전기간에 걸쳐 있을 용(사단)이 교회에 주는 환란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한편으로 용이 결박 당하는 천년왕국의 기간도 교회시대의 전기간으로 보는 모순을 범한다. 20장에 천년동안 용이 무저갱이에 갇히는데, 꼭 같은 기간의 것에 해당한다는 12장에서는 어떻게 용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분류하는 다섯째 단원도 보자. 이 단원도 초림은 나타나지 않으며, 교회의 전체의 기간도 나타나지 않는다. 15장은 일곱대접에 대한 도입이며, 16장은 세상에 주는 심판이다. 그리고 이어서 16:12이하의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난다.

5) Hoekema는 인을 떼 때에 나타나는 네가지 징조(전쟁, 기근, 질병, 성도들의 대환란)들은 신약시대 전기간을 걸쳐서 있을 재난들로 말함으로서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포함시킬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본인은 종말적 구절들에 있는 네가지 징조들이 신약전기간에 걸친 일반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약시대에는 전쟁, 기근, 질병 등이 없었다는 말인가? 4:1에 주님은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구약에서부터 있어왔고, 신약 전기대에 걸쳐서 있을 일반적인 것이라면 주님이 요한에게 특별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준다고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계 1:1-3에서 “속히 될 일” 또는 “때가 가깝다”는 말은 재림의 때를 염두에 두고한 말이다(1:7이 이를 증명함).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을 근본적으로 주님의 재림때와 관련하여 있을 “후에 될 일”을 계시로 보여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여기에 대한 자세한 토론은 한정건, 1992: 61-67 참조 바람).

6) Hendrickson은 9:14이하에 기록된 전쟁은 신약시대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전쟁으로 이야기하며(1975: 146), Hoekema는 이것은 실제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투쟁—즉 유브라테는 교회의 경계로서 세상이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으로 주장한다(1969: 331f). 그러나 8:15은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전쟁으로 말하고 있다. 분명히 년월일과 시간까지도 정해진 어떤 특정한 전쟁을 가리킨다 분명하고 이 전쟁의 결과까지 성정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11장의 42달과, 1,260일 대한 기간을 교회시대 전체의 것으로 본다. (Hendrickson, 1975: 151f).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자체에서 우리는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점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된다(지면상 이부분의 자세한 토론은 생략하겠다. 구체적인 토론은 한정건, 1992: 200-207 참조 바람).

7) 계 12장의 ‘여자’가 이스라엘인지 교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스라엘로 보고자 한다. 한정건, 1992: 175-180 참조할 것.

이상 개략적으로 볼 때에도 각 단원들이 초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으며, 교회시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건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성립되기 힘들다. 그들은 계시록의 기록들을 역사적인 것으로 보지않고 지나치게 교회시대 전체에 있을 일반적인 것,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⁸⁾ 이러한 해석원리에 따라서 그들은 계시록 20장도 교회전체의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20장으로 옮겨 과연 20장이 초림으로 시작되는 장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세밀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다.

2. 계시록 19장과 20장과의 관계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 20장을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건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20장을 초림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림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19장과의 연관성을 살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19장이 어떠한 장면인지를 규명한 후에, 20장은 19장과 어떠한 관계로 볼 것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2. 1. 계시록 19장 해석

계시록 19:11-21에 한분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땅위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용사들을 싸워 쳐부수는 광경이 묘사된다.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졌고 (16절), 친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다(15절).

대부분의 무천년주의자들도 이 부분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지만, 혹자는 19장이 상징적으로 쓰여졌다고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큰 근거는 “그가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다”(19:15)고 한 구절에 근거를 둔다(Ladd, 1977: 33 참조).

그러나 테살로니가후서 2:8에서도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불법한 자(적그리스도)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 입의 기운”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것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주님의 재림때에 있을 심판의 장면을 말한다. 바울이 “그 입의 기운” 이라고 말할 때에 아마도 이사야 11:4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와같은 묘사를 사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가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여기서도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기 위해 “입의 막대기”라는 표현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계시록 19:15을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없다. 앞에서 살핀 유사한 모든 본문이 주님의 그의 입술의 명령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idem: 33f).

우리는 계시록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장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비록 무천년주의자들도 대다수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그의 재림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본다. Hendrickson의 견해와 같이 19장에서 강림하시는 주님의

8) 물론 그들도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13장은 적그리스도로 보며, 16장의 아마겟돈 전쟁도 마지막 전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해석에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점들이 많다고 보여진다.

모습은 13장과 16장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Ladd, 1977 : 33 역시 참조). 13장은 용의 앞잡이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니 짐승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성도를 괴롭힌다. 이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데에 무천년주의자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한다. 13장에는 양의 모양을 한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는데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게 하고 666표를 준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일들을 꾸미는 것이다. 그들 공동의 역할은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나타난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땅의 임금들을 꼬여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

이제 1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천군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강림하신다. 그가 쳐부수는 군대는 바로 아마겟돈의 전쟁을 일으킨 군사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때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자(주님)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19 : 19). 그러나 이 전쟁에서 짐승은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 둘이 산채로 유향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한다(20-21절).

2. 2. 계시록 19장과 20장과의 관계

무천년주의자들은 비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지만 20장은 초림과 관계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계시록 20장은 19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20장은 19장의 연속적인 사건이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이 독자적인 단원을 구성하는 것인지? 19장은 재림의 환경이지만 20장은 초림으로 그 장면으로 급변하는지? 또한 19장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20장은 역사적인 것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도록 문장의 스타일이 앞 장과 단절된 전혀 다른 장르로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20장을 자세히 읽으면 결코 19장과 분리시킬 수 없음을 다음의 몇가지의 증거들에 의하여 확증할 수 있다.

(1) 19 : 20에 짐승(적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 산채로 유향불 못에 던지웠다. 20 : 1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계시록 13장이후로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함께 짝을 이루어 일한 모습이 나타났다. 계시록 16 : 13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세상 임금들을 미혹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다. 19장의 예수님 재림의 모습은 이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되었음을 밝혔다(이것은 대부분의 무천년주의자들도 동의하는 바이다). 19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전쟁하는 모습으로 내려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았고, 20장에는 용도 사로잡힌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이어서 용이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히 연속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장은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9장의 연속이다(Ladd, 1977 : 35 참조).

(2) 20 : 10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향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기록한다. 만약에 용(마귀)이 사로잡혀서 유향불에 던지우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그곳에 벌써 짐승(적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그 유향불 못에 있다는 말인가? 무천년주의자들도 13장과 16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본다. 그런데 만약 용이 못에 던지우는 것이 초림때의 사건이라면, 거기에 어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있을 수 있는가? 따라서 20장은 19장 이후에 연속되는 사건이다. 즉 19장은 예수님 재림이지만 20장은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있을 교회의 기간이라는 논리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

(3) 20장의 천년왕국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참여한다(20 : 4).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었다.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장임에 틀림없다. 계약신학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장면은 20장에서 천년 후에 용이 잠시 풀려나와 활동하는 기간이며, 그리고 그는 최후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구조를 가진다(Hughes, 1990 : 209 참조). 그러면 아직 용이 감금되어 있는데 어떻게 짐승(적그리스도)에게 목베임을 당한 성도들이 살아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말인가? 만약 13장의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면 20장의 왕국은 적그리스도의 활동 후에 있을 것이 분명한 것이다.

(4)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환경이다. 19 : 15은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다음은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장면이 20장에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19장과 20장의 사건들은 연속되는 것으로 줄거리를 엮을 때에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사로잡았다(19장).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여태까지 용에 의해 콘트를 되어왔다.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13 : 2 이하). 그리고 그의 사주에 의해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르게 하였다(16 : 13).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세상은 바로 용이 지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항상 함께 일해 왔다(13장과 16장).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사로잡았는데 만약 용을 사로잡지 않고 남겨두어서 어찌 그가 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은 주님이 그 다음으로 용을 사로잡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Ladd, 1977 : 35).

(5) 20 : 3에 용을 무저갱이에 가두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고 하였다. 이 말은 계시록 16장과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6장에서 용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세상의 임금들을 모았다. 이때에 본문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귀신의 영이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나아가서 전쟁을 위해 왕들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다. 20 : 3에 이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를 무저갱이에 가두겠다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세상의 임금들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천년후에 다시 “잠간 놓이리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에 그가 세상을 다시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장은 앞의 아마겟돈 전쟁과 문맥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여러 면에서 살펴 볼 때에 20장의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에서 가장 자연스럽다.

3. 천년동안 사단을 결박함

천년왕국 논쟁에서 큰 이유는 사단이 천년동안 결박된다는 부분이다. 후천년주의자는 현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사단이 결박당한다고 말한다. 후천년주의자 중의 어떤 이는

주후 800년경 프랑크 족(독일계)들이 대거 기독교화 된 때가 사단이 결박된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 이후에 세상은 악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았으며 복음이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천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

무천년주의자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희생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는 것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한다(Hughes, 1990 : 209). 무천년주의자들은 또한 마태복음 12 : 29과 누가복음 10 : 17-18의 구절과 계시록 본문이 직접적인 연관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면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과연 사단이 결박되었는가? 현 교회시대에 과연 사단이 무저갱에게 던져 잠그고 인봉되어진 상태인가?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3. 1. 그들의 계시록 다른 부분의 해석과 모순된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의 기록된 사건들을 영적 내지 교회시대 전기간의 사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해석해 왔다. 20장에 와서도 그들의 그러한 성경해석 태도가 나타나서 역시 교회시대 전체의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성경해석에 자체 모순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

계시록 12장은 용이 예수를 낳은 여인을 1,260일(혹은 세때 반)동안 광야에서 핍박한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여인을 교회로 해석하며, 1,260일을 교회시대 전체로 해석하였다(헨드릭슨, 1975 : 164ff : Hoeksema, 1974 : 418ff). 그런데 만약 20장에서 용이 천년동안 결박당하는 것도 교회 전체의 기간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12장에서 용이 교회의 전기간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계시록 13장에서 입곱머리를 가진 짐승이 등장한다.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2절). 헨드릭슨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로서 그 짐승이 가진 입곱머리는 로마시대의 왕들이며, 곧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다시 낳은 것은 미래에 다시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본다. 이 짐승을 요약하면 로마시대부터 있어온 교회를 핍박한 왕들인 적그리스도를 말한다(1975 : 179). 만약 계시록 20장의 용이 옥에 갇혔다는 것이 초림때이고 그가 옥에 갇힌 1,000년의 기간이 전체 교회기간이라면, 13장에서 로마시대에서부터 있어온 교회를 핍박한 왕(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함)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 용은 또 누구인가?

우리는 계시록에서 용이 하는 역할들을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용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적그리스도)을 앞세워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우상숭배하게 하며 경제를 통제한다. 계시록 12장에는 이스라엘(혹자는 교회로 본다)을 핍박한다. 이러한 그의 역할을 정의한 후에 우리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그들은 계시록 6장에서 전쟁, 기근, 온역, 성도들의 대환란 등을 교회시대의 전기간으로 보았다. 만약 용이 결박되었으면 어떻게 그것들을 교회의 전기간으로 그들은 해석하는가. 계시록 20장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으면 그들은 6장을 세상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잠시 풀려서 일으킬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11장의 해석을 보자. 무천년주의자들은 어김없이 여기에도 그들의 특유한 성경해석법인 교회 전기간으로 해석한다. 11장은 전쟁으로 인하여(주후 70년 로마의 전쟁)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방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두 증인들이 예언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 전기간동안 교회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

는 상황으로 그들은 이해한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교회도 계속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상황은 용이 결박되었다는 것과 맞지 않는다.

그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성경해석법을 고수하다 보니 이처럼 해석해 놓은 내용들이 서로 상충된다. 이러한 내용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즉 20장과 계시록 앞부분들을 맞추기 위해 앞부분들의 내용이 마귀가 천년이후에 풀려날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로 해석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해석법이 되어서 그들의 해석원리가 손상을 입으며, 그들이 앞에 해석한 것들과 맞지 않는다.

3. 2. 교회시대에도 사단은 계속 활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용의 결박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20장에서 용이 결박되었다면 용이 주로하는 역할이 급격히 감소되었는가는 것이다. 20장의 문맥에서 볼 때에 용의 역할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갈보리 사건이후 과연 이러한 전쟁이 없어졌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감소되었는가? 전쟁은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 동일하게 계속되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도 교회 전 기간을 통해서 계속되어 오지 않았는가? 또한 죄악이 예수님 이전보다 현 교회 시대에 급격하게 감소되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감소되었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 이후에 사단이 역할을 중지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 반대를 증언하고 있다. 신약의 서신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 : 8).

마귀의 계(詭計)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썩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엡 6 : 10-11).

만약 사단이 결박되어 갇혀있었다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악의 영에 대하여 싸울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나 교회시대에 사단이 결박당하여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를 볼 수 없다. 사단은 살아 있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오히려 사단을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되 특히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사단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다. 그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핍박한다. 그가 옛 뱀으로써 특히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이렇게 세상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있을 사단의 역할을 기록하다가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의 앞장이들을 결박하고, 20장에서 사단도 잡아 결박하는 것이다. 이로써 더이상 미혹이 없으며 전쟁이 없는 평화의 왕국이 천년이라는 기간동안 계속된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3. 3. 복음서의 구절들에 대한 해석

이제 우리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마귀의 결박 혹은 추락을 말하는 복음서의 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태복음 12:29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누탈하는 것으로 비유한다. 물론 Hoekema 등은 이 구절이 바로 계시록 20:2에서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넣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977:162). 누가복음 10:17-18에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는 말씀도 계시록의 용이 결박당한 것의 증거 구절로 제시한다.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시록 20:2이하는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마태복음 12:29의 사건을 두고 한 말이라면 과연 귀신이 그때에 결박당하고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였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사건 이후에 계속하여 마귀가 활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마귀는 베드로에게까지 접근하여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반대한 사건과, 가룟유다에게 들어가 그를 유혹하여 예수를 팔게 만들지 않았는가? 마귀는 자기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일까지도 자행하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12장이후에 마귀가 무저갱이에 잠겨 인봉되었기는 커녕 더 크게 활동하고 있다.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앞의 본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공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왕국을 점령해 나가면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다(마 13장의 비유들과 눅 8장의 씨뿌리는 비유등). 즉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마 12:28).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가야 한다. 그것은 아직도 마귀가 차지한 곳(혹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될수록 마귀의 영역은 밀려나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를(마귀의 통치가 물러가고)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고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롬 8:23). 그뿐 아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다(21-22절).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며,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24-25절).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에 주님은 “때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다(행 1:6-8).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님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음을 말씀함으로써 아직은 그 때가 아님을 암시하는 것이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 때가 올 것이다(마 24:14 참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으라”고 권고한다(히 12:14).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왕권의 현재성을 너무 강조하여 왕권의 미래성에 대하여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양쪽을 다 밝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왕권의 현재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히브리서 1:3과 2

:7-8은 죄인들을 대속하신 그 분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서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음을 강조한다. 하늘 보좌의 오른편은 통치권의 부여를 의미한다(계 3:21 참조). 그는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부여받으셨다(단 7:13-14 참조).

그러나 성경은 그의 통치권의 현재성과 함께 미래성을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10:12-13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위의 구절은 시편 110:1과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5:24-26도 위의 증거들을 뒷받침한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⁹⁾

이상의 증거들은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의 통치자이시지만 앞으로 원수들을 쳐 부수는 세상을 향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실 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모두를 인정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위에 이루어졌다(already).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not yet).¹⁰⁾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말해지는 마귀의 결박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위에 편재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현재성의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가야 함) 마귀는 이땅위에 아직 활동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있을 왕국을 생각할 때에 그 왕국은 땅에 편재할 것이며, 마귀는 완전히 감금당하고 주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때에 명실공히 모든 원수들과 만물이 그 발아래 복종케 될 것이다(고전 15:27-28).

따라서 우리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구절들을 왕국의 현재성에서 이해해야 하며, 그것과는 달리 계시록 20장의 것은 미래의 왕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 왕국의 이중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9) 이 구절이 성도의 부활(재림때에 있을 것임)과 불신자들의 부활(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임)사이에(즉 천년왕국 시대) 있을 주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뒤에 다루겠음). 물론 무천년주의자들은 성도와 불신자들의 부활 사이에 시간적인 긴 gap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여하튼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에서도 재림때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두며(25절상), 이는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는”때임을 가리킴에는 확실하다.

10) 우리는 영어로 fulfillment과 consummation으로 구분되는 예언의 성취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다른말로 “already, but not yet”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표현들이다.

다.¹¹⁾

4. 부활에 관한 해석

천년왕국에서는 첫째 부활한 자들이 왕국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계 20 : 4-6).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성도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여 미래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중생함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본문의 문맥에서 과연 이 부활이 중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적 부활을 뜻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4. 1. “살아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20 : 4하-6).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살아서”(εξησαν)가 과연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생명을 얻음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헬라어 εξησαν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한다고만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¹²⁾ 간혹 ξαω의 동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음에도 사용된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베소서 2 : 5에 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5 : 25-29의 경우에는 ξαω가 영적인 생명을 얻음과 육체적인 부활에 같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 모두 확실하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중생 혹은 영적인 생명을 얻음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 본문에 사용된 εξησαν을 위의 두 구절에 비추어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Hoekema, 1977 : 168). 그러나 상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εξησαν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에 사용되었다(마 9 : 18 ; 롬 14 : 9 ; 고전 13 : 4 ; 계 2 : 8 등 ; Ladd, 1977 : 35-38 참조).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 본문에서 문맥상으로 확실하게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즉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의미인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적당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문맥에서 살핀다면 먼저 “살아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베임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 “목베임을 받은”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었으며, 그들이 이제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해석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또한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목베임을 받아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리워져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죽은 영혼들이 미래에 부활하기 전까지 중간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헨드릭슨, 1975 : 235ff ; Hughes, 1990 : 211ff). 만약 본문에서 “살아서”라는 말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은 “첫째 부활”(η αναστασις η πρώτη)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목베임을 받고 영혼이 천국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혹시 성경에 영적으로 죽은데서부터 중생을 얻는 것을 “살아서”라는 말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더욱이 죽은 영혼이 하늘 보좌에 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앞에 “목베임을 받아” 죽은 것과 대비하여 볼 때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왕국에 참여하며,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부활은 재림때에 있을 수 밖에 없다.

4. 2.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비교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 20 : 6절을 순교당한 성도들이 “첫째부활”로 영적으로 살아서 하늘 나라(중간기)에 참여하므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Hoekema, 1977 : 171).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 전자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후자를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성도들의 부활을 첫째와 둘째로 나눈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그리고 불신자들의 부활을 둘째로 부른다). 후자가 “둘째 부활”이라는 말 대신에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는 13절이하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서” 살아난 그들은 곧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워 지기 때문이다. 물론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과는 무관할 것임을 밝힌다.

본문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εξησαν)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동안 왕노릇 할 것이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ουκ εξησαν)”이라고 하였는데, 만약 무천년주의자들이 전자의 “살아서”를 영적으로 해석하여 중생함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면 후자의 얼마기간동안 “살지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만약 εξησαν을 둘 다 영적인 ‘중생’으로 해석한다면, 앞에 “살아서”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미 중생함을 받아서 천국에 참여할 것이나 뒤에 “천년동안 살지못하더라”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가 천년이후(즉 교회시대가 끝나서) 그들까지도 살아나는, 즉 중생함을 받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앞에는 영적으로 중생을 의미하나 뒤의 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리하여 해석할 것인가? 만약 헬라어의 같은 단어를 한 문맥 안에서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중생) 하나는 여자적인 의미(육체적으로 살지못함)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인위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상에서 볼 때에 “살아서”를 중생 혹은 영적인 생명을 얻음으로 보는 무천년주의자의 성경 해석은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으며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문에 “산다”는 말은 성도들이 죽었다가(우상의 표를 받지않고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

11) 사실 무천년주의자들도 왕국의 이중성을 인식한다. Hoekema도 우리는 현재에 “already”와 “not yet” 사이 긴장속에 살고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는 마 12 : 28등의 구절이 왕국의 현재성(already)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한다(1977 : 178). 그러면서도 그는 계 20 : 2이하의 용의 결박을 무리하게 왕국의 현재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12) 이러한 무천년기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에게부터 시작하여 현대신학자들 중에는 Floyd E. Hamilton, N. B. Stonehouse, W. Hendriksen, A. A. Hoekema, Philip E. Hughes 등을 들 수 있다 (최홍석, 1992 : 33이하 참조).

킨 자가 목베여 죽임 당했음) 육체적으로 살아나서 왕국에 참여함을 의미하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때에 우상의 표를 받지않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 함께 왕국에 참여할 것임, 고전 15 : 51-53 참조), 그 외에 죽은 자들(불신자들)은 천년동안 살아나지 못하다가 천년 이후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4. 3.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간의 시간적인 차이

무천년자들은 전천년기설에서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봄에 대하여 강하게 공격한다. 특히 요한복음 5 : 28-29에서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는 말씀이 두 부활이 재림 순간에 한꺼번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구절을 증거로 제시한다(Hoekema, 1977 : 168). 그러나 우리는 앞장에서 구약에서 초림과 재림에 있을 사건을 한꺼번에 한문장에 취급하면서 시간적인 간격을 전혀주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심지어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회복과 초림이 한꺼번에 기술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예언의 특성을 볼 때에 요한복음의 본문도 양자간의 시간적인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함께 쓴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반면에 성도와 불신자의 부활을 함께 다루는 가장 강력한 성경구절은 고린도전서 15 : 23-26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ταγμα)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επειτα)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ειτα) 나중이니(τελος)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본문은 부활의 차례를 말하고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신자들을 말함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멸함을 받을 자들이다. 본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연 세가지 부활의 차례(ταγμα)가 시간적인가 아니면 영광의 차이(degree)를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ταγμα 하나만 보면 두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ταγμα를 설명하는 시간적인 부사 επειτα와 ειτα가 함께 사용된 것을 볼 때에 본문을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¹³⁾(Ladd, 1977 : 38f; 최홍석, 1992 : 39 참조).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επειτα)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παρουσια) 있을 성도들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큰 간격이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면 성도들의 부활과 “그 후에”(ειτα) 마지막(τελος)으로 있을 나머지의 부활 사이에도 간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사이에 교회의 시대라는 큰 간격이 있다면, 성도들의 부활과 그 나머지의 부활 사이에도 큰 간격이 예상되며,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위의 본문에서 두번째와 세번째 부활 사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번째 부활(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일어난다. 그 다음은 “나중이니” 이때에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이다. 24절에 의하면 이 ‘나중’(τελος)에 해당하는 부활은 심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있을

13) επειτα와 ειτα는 신약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부사로 사용되었다.

원수를 멸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불가불 왕 노릇하실 것이다”. 그리고 “뎌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순서는 계시록 20장의 것과 일치한다. 재림때에 성도들이 부활하고, 천년동안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해당하는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천년왕국(그리스도의 통치)은 성도들의 부활과 멸망받을 불신자의 부활 사이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아직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도 인식할 수가 있다.¹⁴⁾ 이 ‘사망’이라는 원수는 뎌 마지막에 제거될 것이다.

V. 성경해석의 원리와 신학적인 고려

1. 본문해석과 신학적인 고려와의 관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본문해석만을 통하여 살필 때에는 전천년기설이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인지를 보았다. 반면에 무천년기설이 부자연스러우며 무리한 해석이 많은 것도 관찰하였다. 그런데도 왜 오늘날까지 천년왕국은 팽팽한 상태로 서로의 양보를 도출해 낼 수 없는가? 물론 모든 주장에도 다 어느 정도 그 근거가 있으며, 또 모든 이론에도 다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전천년기설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즉 어떻게 오는 세대의 회복된 왕국에서 다시 마귀의 미혹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왕국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냐 하는 것도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점 외에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는 배경에는 “성경해석의 원리”와 “신학적인 고려”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위의 두 문제를 취급하기 전에 본문해석이 신학적인 고려보다 앞서야 함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신학은 해석을 바탕으로 형성되지, 신학이 먼저 있고 본문해석이 뒤에 올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신학의 조명하에 본문해석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은 어떠한 신학에도 앞선다. 그리고 난 후 우리는 해석한 본문이 정확한지를 신학적인 조명을 받아 점검해야 한다. 만약 점검과정에서 신학과 상치되는 것이 발견된다면 본문을 다시 해석하고, 그래도 본문의 해석이 정확하다면 신학의 수정이 필요한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석이 신학을 낳고, 또 신학은 해석을 더 풍부하게 만 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성경해석의 원리 논쟁

14) 사실 이 문제가 천년왕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회복되는 왕국에 대한 예언들과 연관을 시켜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주제에 해당할 것이며, 본지에서는 다루지않고 다음의 논문제목으로 미루기도 하겠다. 이를 위해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보기를 원하면 필자의 1992 : 241-49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다루어 온 과정에서 뚜렷하게 들어난 것은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졌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여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을 문자주의자들이라 비난하며, 또한 전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을 영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천년기설을 주장하는 필자는 “문자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과 구별됨을 강조하고자 한다.¹⁵⁾

우리의 성경해석 원리는 “가능한 여자적 해석”을 견지한다. 물론 성경에는 상징적인(혹은 비유적인) 묘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계시록 13장에 열뿔과 일곱머리를 가진 짐승이 등장한다. 우리는 그 짐승을 문자적으로 짐승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경우는 분명히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여태까지 있어온 교회를 대적하는 왕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등장하는 왕)로 해석하는 데에 무천년주의자들과 동의하는 것이다. 또 구약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모두 해석되어야 된다고도 하지 않는다.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많은 예언들이 여자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를들면 이사야 52:13부터 53장에 걸쳐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사야 50:6에서 “나를 대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맞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맞기며 수욕과 침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지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예언은 마 26:67 등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해서 “문자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성도들의 부활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러한 예들은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우리는 확실적인 문자적 해석이나 확실히 영해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문자적으로 또는 얼마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 해답을 쉽게 내리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영적인 해석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본문이 상징적(혹은 비유적)으로 쓰여졌다는 확신이 없을 때에 여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 보다 건전한 성경해석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여자적 해석이 영적인 해석보다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여자적 해석”의 원리는 “가능한 영적인 해석”의 원리보다 더 우수한 해석법이라고 필자는 믿으며, 그것이 종교개혁가들과 그 후예들이 견지해 온 해석원리로 믿는다.

3. 천년왕국론의 성경신학적인 중요성

우리는 무천년기이든 전천년기이든 천년기설 자체에만 국한 시킨다면 그리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양쪽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

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변함없이 영원하든 아니면 천년기간이후 어떤 변화가 잠시 있다가 영원한 나라 계속되든 그리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1,000년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20장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이를 뒷받침 해 줄 증거들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애매한 구절을 해석하는데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역대로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의 끝없이 반복되어 오면서도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 뚜렷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만큼은 자기의 확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여지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천년왕국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천년왕국에 관한 것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천년왕국에 한에서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본인의 태도도 역시 문제가 계시록 20장을 넘어 서서 다른 구절에까지 확산될 때에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만큼 이 왕국의 문제는 전(前)이나 후(後)이나 아니면 무(無)이나의 문제자체를 떠나서 그와 연관된 여파가 너무나도 크다. 즉 천년왕국은 성경신학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론만 보아도 그들의 앞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의 성경신학의 결론을 이 천년왕국에서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천년왕국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신학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판가름 된다. 전천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선지서들에 이르기까지 계시역사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거쳐 재림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선지서들의 왕국(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초림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재림에서 대다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예언들이 예수님 초림에서 그리고 교회시대에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바로 이것은 예언들을 여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원리와 연관된 것이다. 따라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는나의 문제는 결국 엄청난 분량의 구약성경과 신약에서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나의 문제로까지 파급되는 것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초림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즉 교회)에서 해석하는 반면에, 전천년주의자들은 재림때의 왕국으로 해석한다. 다니엘 9장을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초림의 사역 중심으로 해석한 반면,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반면 전천년주의자들은 재림때와 관련한 사건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다.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을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혹은 이루어 질)사건들로 해석하는 반면 전천년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역사적인 사건들로 보는 것이다.¹⁶⁾

천년왕국에 대한 각 주장들은 이상의 모든 본문들에 대한 각자의 해석의 결과로 나타

15) 물론 세대주의자들도 “문자주의”라는 누명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세대주의 성경해석 원리는 Ryrie, 1979: 86-109를 참조할 것.

16) 필자는 “종말론 강해”(1992)에서 이상의 종말에 관한 성경구절들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필자는 본문들이 과연 무천년주의적인 영적인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천년주의적인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필자는 그 책을 통하여 철저히 바른 본문해석이라 사명과 함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해석원리를 따랐음을 밝힌다. 자세한 것은 필자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는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우리는 천년왕국설 자체에만 가지고는 어느 설을 주장하던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배후에 놓여진 너무 엄청난 뿌리와 동치의 차이들까지 생각한다면 작은 차이라고만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천년왕국에 관하여 우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의깊은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며, 어느 설이 보다 성경적인지를 신중 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학설들의 개요들을 보았으며, 본문을 깊이 해석해 봄으로써 어느 학설이 보다 바른 것인지를 분석 비판해 보았다. 현대에 주종을 이루는 학설은 무천년기설과 역사적 전천년기설이다. 필자는 여러 학설중에서 오늘날 보수주의 신학계에서는 세대주의 신학에 대항하는 계약신학의 분위기를 타고 무천년기설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처해있음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무천년기설의 주장들을 분석하고, 또 성경본문을 심도있게 해석해 본 결과 무천년기설보다 역사적 전천년기설이 보다 바른 성경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무천년기설은 요한계시록을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하여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시대 전체에 관한 예언이며, 묘사되는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으로보다는 영적으로 교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러나 그리스도 초림은 계시록 12장에서만 나타나지 그 외의 곳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필자는 지적하였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 20장을 19장과 단절시켜, 19장은 재림의 모습이지만 20장은 초림의 사건에서 시작하는 교회전체의 기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20장 본문의 여러 요소들에서는 19장 이후의 사건들이 명백히 증명됨을 보았다. 또 무천년주의자들은 목베임을 당한 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동안 왕노릇 한다는 구절에서, “살아서”는 영적으로 중생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문은 짐승의 사건이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당한 자들이며, 이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로서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함을 밝혔다. “살아서”라는 말이 중생이 아닌 재림때에 있을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여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중생에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음), 또한 “나머지 사람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에서 이때에 살지 못하였다는 것이 중생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닌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는 의미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그 외의 여러 구절들을 미루어 계시록 20장은 재림이후에 있을 왕국이며,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기설이 가장 타당한 성경해석임이 밝혀졌다.

전천년기설은 성경해석 원리에서 문자주의는 피하되 가급적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졌음을 밝혔다. 필자는 이러한 성경해석 원리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해석할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바른 종말론을 가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보충적인 연구과제를 위한 제안

본 논문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관찰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주로 무천년기설에 대한 분석비판과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 그 내용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인정한다.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채택해야 함을 본 논문에서 확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채택한 이 학설에 대한 보완과 더 발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함을 느낀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보완적인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천년왕국의 성격과 상태에 대한 고찰

우리는 ‘천년왕국은 어떠한 모습이며, 그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천년”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20장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실 그의 왕국에 대하여는 다른 부분의 성경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구약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이러한 미래의 왕국에 대하여, 그 성격과 상태를 밝혀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서 본문을 위시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등과 같은 예언서들에서 천년왕국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묘사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2) 천년왕국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지, 또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수 밖에 없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로 간주되는 고린도전서 15 : 26과 이사야 65 : 16-25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계시록 21-22장의 “신천신지(新天新地)”는 천년왕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과연 21장 이하의 “신천신지”는 천년왕국과 전혀 다른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혹시나 21장이하의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 그 자체가 아닌지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감히 후자의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것은 별로 학자들이 크게 주장한 일이 없는 것이지만 전혀 새로운 의견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또한 계시록 21-22장 본문을 세밀히 분석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과제들을 필자는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연구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필자의 책 “종말론 강해”(1992)에서 이상의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루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좀 더 깊은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Boettner, L.
1957 *The Millennium*.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 1977 "Postmillennialism", in *The Meaning of Millennium*, ed. by R. G. Clouse.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pp 63-92.
- Erdman, Charles R.
1922 *The Return of Christ*, NY : Doran.
- Hoekema, A. A.
1977 "Amillennialism", in *The Meaning of Millennium*, ed. by R. G. Clouse.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pp 155-188.
- 1986 개혁주의 종말론, 유호준 역, 기독교 문서선교회.
- Hoeksema, H.
1974 *Behold he Cometh :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 Reformd Press.
- Hughes, Ph. E.
1990 *The Book of the Revelation*. Grand Rapids : Eerdmans.
- Hoyt, H. A.
1977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in *The Meaning of Millennium*, ed. by R. G. Clouse.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pp 63-92.
- Kik, J. M.
1971 *An Eschatology of Victory*.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 Ladd, G. E.
1975 "The Parable of the Sheep and Goats in Recent Interpretation", *Tewnty-fifth Anniversary Volume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 Ladd, G. E.
1977a "Historic Premillennialism", in *The Meaning of Millennium*, ed. by R. G. Clouse.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pp 17-40.
- 1977b "An Historic Premillennial Response", in *The Meaning of Millennium*, ed. by R. G. Clouse.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pp 93-94.
- Robertson, O. P.
1980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 Walvoord, J. F.
1974 "Review of the Presence of the Future", *Bibliotheca Sacra*. 131 : 273.
- 김기홍
1988 프린스턴 신학과 근본주의. 서울 : 도서출판 창조성.
- 박아론
1992 "총신의 종말론적 전통", 신학지남. 제 59 권 제 4 집 : 4-5.
- 최홍석
1992 "현대교의학에서의 천년왕국과 종말", 신학지남. 제 59 권 제 4 집 : 7-48.
- 한정건
1991 현대종말론의 성경적 조명. 기독교문서선교회.
- 1992 종말론 강해. 기독교문서선교회.
- 헨드릭슨, 윌리엄
1975 신약성경 주석 : 요한계시록, 김영익 문영탁 공역. 아가페출판사.

高 神 大 學 校
論 文 集 第 20 輯
1993 pp. 179~206

땅 : 성경적 조명에서 본 토지 공개념

한 정 건*

(이 논문은 1991년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 붐은 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해치는 사회악의 한 요인으로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막연한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비판의 소리는 높지만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의 정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토지가 어떻게 공적인 것이며, 그것을 인간은 어떻게 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살피고자 한다. 성경은 어느 특정한 종교에 국한된다는 제한성이 있겠다. 그러나 성경은 우주의 근원과 목적의 원리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우주철학의 기본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성경은 인류문화의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경의 원리는 곧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토지 공개념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논문 목적은 토지의 공개념을 찾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토지에서 인간이 행해야 하는 사명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살피고자 한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현상과 인류의 역사를 살펴 볼 때에 인간이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힘들 것이다. 성경에서도 역시 인간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그러한 실패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말 것인가? 성경은 현실의 비참함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을 제공한다. 그들이 가진 끊임없는 희망, 이것은 바로 '신학'이라는 도구로서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땅을 역사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다룰 때에 땅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부르거만은 "땅은 확실하게 역사적이다. 그러나 그 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땅은 항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한다(부르거만, 1992 : 6).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서 땅을 다룰 때에 현실적인 역사에서 신학적인 의미로 전향하지 않으면 안된다(Oudersluys, 1979 : 4). 성경에 나타나는 땅의 주제는 현실 세계에서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기능으로 승화되어 이스라엘 역사에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Kaiser, 1981 : 302. 참조), 이 신학적인 조망에서의 땅의 역할을 살피는 것도 본 논문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부교수